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식민지 경험과 탈식민지 독립운동에 대한 비교*

정재호(울산대 카리브 해 연구센터)**

- I. 서론
- II.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
- III.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식민지 경험과 탈식민지 독립운동 분석
- IV.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식민지 경험과 탈식민지 독립운동 비교
- V. 결론

I. 서론

콜럼버스로 상징되는 유럽최강의 식민주의자들이 도착한 아메리카는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다(엘리엇 2000, 45). 이는 유럽사회가 근대로로의 이행이라는 시대적 특수성 하에서 전개되는 우연적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탈과 식민지화의 비극적인 계기 이외에 다름 아니었다.¹⁾

하지만 미주대륙의 이런 역사적 비극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을 비롯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기초학문 국내외지역연구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KRF 2003-072-BM 2009).

** Chae-Ho Cheong(University of Ulsan, The Center for Caribbean Studies, chcsun@freechal.com), "A Comparative Study on Colonial Experiences and Independence Movements in Cuba and Puerto Rico."

1) 스페인왕실의 레콩키스타(Reconquista)적 영토확장은 아메리카에도 그대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스페인왕실이 보낸 아메리카원정대는 기본적으로 종교적 호전성과 식민주의적 약탈성, 그리고 세속적 사업성이 혼합된 무리였다.

한 식민제국들간의 부단한 국제역학적 재편, 자유주의 사조와 프랑스혁명 등 서구 근대사회로의 이행기에서 유럽의 정치사회적 변동, 그리고 식민지 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탈식민지 독립운동은 장구한 스페인 식민지배체제를 균열시킴으로써 중남미 사회는 일정한 역사적 진전을 이룩했다. 이렇듯 중남미 식민지배의 총체적 축적물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 식민주의가 정복과 약탈, 그리고 상업주의적 착취를 본성으로 하는 서구 식민주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였다면, 탈식민지 독립운동은 근대 국가주의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쿠바와 푸에르토리코는 지정학적으로 유럽식민지 세력들의 식민지화 관문이었으며, 스페인 제국의 강력한 군사적 주둔지, 직할지로서 식민지 경영의 거점이었다(Rogozinski 2000, 121). 300년 이상 계속된 이 지역의 식민상태는 19세기 이후 스페인 제국의 위기를 계기로 해방되어 대부분의 식민지가 독립을 쟁취하였으나 쿠바와 푸에르토리코만은 사회경제적 열악함과 탈식민지운동 주체의 무관심과 역량 미숙 등으로 인하여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채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스페인제국의 식민지배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들 식민지는 마셔전쟁을 계기로 스페인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로 인하여 재식민지화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역사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독립에의 열망과 투쟁을 전개한 쿠바는 미국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난 반면, 독립주의자들이 거의 소멸되고 자치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장악한 푸에르토리코에서는 독립을 성취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식민지 보호령으로 남아 자치적 식민상태를 유지하는 반독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Carr 1984, 307).

본 논문은 스페인 식민지배하에서 쿠바와 푸에르토리코가 겪었던 식민지 경험과 탈식민지 독립운동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하여 그것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규명하며, 또한 다른 식민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독립운동이 지연되었던 요인과 독립운동이 실패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들 식민지적 경험과 탈식민지 독립운동이 갖는 특성에 대하여 규명함으로써 이들 두 지역, 나아가 카리브 및

중남미 지역의 다양하고 혼종적인 역사와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중남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 대한 연구가 점점 활기를 띠어가고 있다(김우택 외 2003). 하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20세기의 권위주의와 민주화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 및 영역에서 여전히 협소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중남미 지역에서 발현하는 사회문화적 제현상을 이해하는데서 이들 지역의 식민지 역사에 대한 연구는 관건이 아닐 수 없다(민만식 외 1993, 324).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에 대한 지역학적 이해가 부족한 현실에서 스페인 식민지시대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연구, 특히 근대국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탈식민지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탈식민지 독립운동은 개념적으로 식민지 종주국으로부터 탈주하여 식민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해방운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독립전쟁까지도 포함되나 탈식민지 독립운동 이후 역사적으로 중남미국가들이 보인 국가형성운동까지를 직접적으로 내포하지는 않는다.

II.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

II.1. 선행연구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카리브지역에 대한 관심 및 연구는 한국자본주의의 시장적 요구와 세계화 추세에 부응한 지역연구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영역들에 대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국내의 경우 연구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김우택의 글을 살펴보고, 외국의 연구사례로는 와젠에임과 햄넛의 글을 대상으로

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김우택의 「정치적 독립과 탈스페인화」(김우택 편 2003, 38-41)의 글은 「정체성의 역사」 중의 일부분으로 라틴아메리카 독립운동의 성격과 딜레마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필자는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의 출발은 기본적으로 스페인의 식민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촉발됐기 때문에 성격상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크리오요 집단이 민주주의보다는 국가적 독립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국가형성이라는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 질서는 기존 식민구조를 탈피하지 못한 채, 식민지적 연속선상에 머물렀던 점을 예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을 진정한 혁명, 즉 시민계급에 의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하기 어렵고 이베리아반도에서 일어난 사건의 반향일 뿐이라고 김우택은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김우택은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이 진정한 혁명이 될 수 없었던 이유를 내적 딜레마, 즉 스페인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은 히스패닉국가들의 긍정인 동시에 전통에 대한 부정이라는 딜레마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김우택의 주장처럼 중남미독립운동이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이 아닌, 입헌군주정 및 귀족공화정을 지향 및 한계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이베리아반도에서 일어난 사건의 반향일 뿐이라는 주장에는 수긍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중남미 독립운동과 스페인 본국의 정치적 위기와는 단순한 일방적 반응관계라기 보다는, 식민지적 착취와 억압에 대한 저항과 해방이라는 대립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베리아반도의 사건은 단순한 반향이 아닌 탈식민지 독립운동을 촉발시키는 외부적 계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중남미의 진정한 혁명, 즉 부르조아혁명의 장애물을 히스패닉국가들의 긍정성과 전통에 대한 부정성의 딜레마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본다. 왜냐하면 스페인의 봉건적 사회제도의 식민주의적 외삽(엘리엇 2003, 99)에 의하여 형성된 중남미지역의 사회제도적, 문화적 동질성은 성격적으로 봉건성과 식민지성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털어 내려는 변증법적 재창조과정, 즉 역사적 과제의 극복 없

이는 근대 국민국가적 자기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카리브지역 독립운동과 스페인 본국의 정치적 위기와의 관계는 단순한 일방적 반응관계가 아닌, 식민지적 착취와 억압에의 저항과 해방이라는 대립관계로 보면서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탈식민지독립운동과 거의 동시에 발생한 1868년 스페인의 '9월혁명'사건을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탈식민지 독립운동을 촉발시킨 외적 계기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운동 성격은 탈식민지 독립운동으로 보고자한다.

다음으로 와젠에임의 글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을 위한 폭동(Wagenheim 1997)은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무장투쟁한 푸에르토리코인들의 최초 탈식민지 독립운동인 라레즈폭동에 대한 연구이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다른 식민지에 비하여 푸에르토리코에서 독립운동이 늦어진 요인, 지도자들이 폭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 식민지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조건, 그리고 독립을 위한 폭동음모가 사전 노출된 경위와 더불어 폭동참가자들에 대한 체포와 조사, 재판과정과 사면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독립폭동사건에 대한 저자의 분석시각은 사회경제적 접근으로, 이 방법을 통하여 운동주체 및 지도세력, 발생지역이 사회경제적 조건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라레즈 폭동의 배경, 주체, 참가이유, 실패요인 등에 대하여 규명하고 있다.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와 같은 상세한 규명에도 불구하고, 푸에르토리코 독립운동의 최고 공모자요, 지도자인 베탄세스(Ramón E. Betances)를 단순히 독립운동의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배제한 것은 라레즈폭동사건에 대한 분석, 특히 실패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베탄세스는 중요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이념적, 조직적, 사회정치적 핵심으로서 독립운동의 성패를 가름하는 조직지도역량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푸에르토리코 탈식민지 독립운동에서 베탄세스의 역할과 활동에 주목하고, 독립운동의 실패요인으로 제기되

고 있는 독립운동지도세력의 지도역량의 한계와 연계시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햄넛의 이베로 아메리카 독립운동의 과정과 경향에 대한 재고찰(Hamnett 1997, 279-328)은 19세기초 중남미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과정과 경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검증하고 있다. 본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식민지 독립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국과 독립’(Empire and Independence)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은 언제나 명료하지는 않다면서, 양자간에는 여러 가지 상이한 위치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독립문제와 관련한 제세력의 입장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견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론적 측면에서도 일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제세력들이 어떤 입장과 행위를 취하였는지 간에 그것들은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식민지의 독립운동은 사회경제적, 사상이념적 측면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탈식민지적, 근대국민국가적 형성운동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탈식민지 독립운동이라는 위치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II.2. 분석 대상 및 방법

먼저 분석대상으로는, 첫째,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식민지 경험에 대한 분석이다. 여기서는 이들 식민지의 특징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카리브지역 식민지 일반을 고려하면서 지정학적 특징과 산업화 측면, 그리고 식민정책을 중심으로 접근하겠다.

우선 지정학적 요인은 지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정치·군사적으로, 나아가 국가형성 및 국제체제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김응중 2000, 171; 킬리 1994). 그리고 식민지에 대한 분석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논의가 갖는 의의는 농업의 발전과 함께 상업화와 산업화에 대한 역사적 함의에의 주목이다. 사회변화의 전제조건 및 주된 요인을 무어(1966)는 상업화에서, 벤딕스(1964)는 산업화에서 찾았다. 중남미 식민지 독립운동에서

도 확인되듯이 쿠바와 푸에르토리코를 비롯한 중남미 식민지에서 농업의 상업화와 산업화는 식민지 사회를 변화시키는 조건으로서 중요하게 작용하여 탈식민지 독립운동의 사회계급적 동력을 형성하였고, 나아가 전근대적 사회에서 근대국민국가에로 이행하는 물질 토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식민지 경험에 대한 분석에서 식민지배정책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은 식민지배정책이 식민지 종주국과 식민지간 각자의 입장과 그에 따른 반응 및 불만 등을 반영하는 이해관계와 역학관계를 표현하고 가늠하는 매개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탈식민지 독립운동 사례에 대한 분석이다. 이에 대한 분석에서는 스페인 식민지배하에서 일어났던 탈식민지 독립운동 사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탈식민지 독립운동의 배경, 주체, 좌절요인, 특징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및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집단이 싸웠는가, 왜 실패하였는가, 그밖에 사건이 갖는 특징에 대하여 살피는 것은 탈식민지 독립운동이라는 사건의 성격, 모순구조, 역량의 문제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쿠바의 분석대상은 스페인 식민지배하 쿠바의 대표적 독립운동인 ‘10년 전쟁(Guerra de los Diez Años, 1868-78)’ 사건을, 푸에르토리코의 경우는 스페인 체제하 유일하면서도 상징적인 탈식민지 독립운동인 ‘라레즈 폭동(El Grito de Lares)’ 사건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방법은 비교분석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는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식민지 경험과 탈식민지 독립운동에 대한 비교이다. 즉, 3요인(지정학 가치, 산업화, 식민정책)에 의거하여 살펴본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식민지 경험과, 배경, 주체, 실패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탈식민지 독립운동 사례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의 방법에 의거하여 제 4장에서는 두 식민지간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추출할 것이며, 그리고 결론에서는 위 양자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규정하는 요인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III.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식민지 경험과 탈식민지 독립운동에 대한 분석

III.1. 쿠바

III.1.1. 식민지 경험

지정학적으로 식민지 쿠바는 1492년에 도착한 일단의 스페인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자신들의 영토로 선포되었고, 이후 벨라스게스(Diego Velázquez)가 이끄는 원정대에 의해 정복당한 후 엔코미엔다 제도가 시행되는 카리브지역 식민지화의 일반적 경험 위에서 미주대륙 최초로 정착촌이 건설된 카리브지역의 가장 큰 섬이었다. 특히, 아바나항구는 식민지 초기 중남미에서 생산된 금과 은을 본국으로 수송하는 보물선단을 보호해야할 중요한 방어진역이었으며, 한때 카리브지역의 식민지화를 위한 스페인제국의 침략기지이었다. 또한 200년 이상 스페인의 식민지 관문 및 국제적 화물수송항구로서 위상을 차지하였다(Rogozński 2000, 52-53). 이런 쿠바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영국은 7년 전쟁기간 중 쿠바를 점령하였으며, 제국주의국가로 발돋움하려는 미국 또한 쿠바에 대하여 가장 먼저 식민지적 관심을 가졌다. 이처럼 쿠바는 스페인의 식민통치하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Knight 1990, 228).

산업적 측면에서 식민지 쿠바는 금광이 고갈되면서 스페인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경제적으로 소외되었다. 이로 인하여 쿠바는 타 식민지에 비해 산업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연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하지만 소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배와 사탕수수가 재배되기 시작하였는데, 담배와 사탕수수 생산에 적합한 비옥한 토지와 자연환경 덕분에 쿠바는 양질의 담배와 사탕수수의 생산지로 발전하였다. 이에 힘입어 16세기 말에는 소규모 농장주(Estancias)에 의해 사탕수수 가공공장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17세기 중반 이후 농작물이 산업화되면서 원료공급지

로서 식민지적 상업작물재배가 촉진되었다. 이와 같이 식민지 사회가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게 되면서 크리오요(Criollo)들의 경제적, 사회적 힘 또한 자연스럽게 증대되는 계기를 맞는다. 18세기 이후 카리브지역에서는 사탕수수, 담배, 카카오, 직물 등의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 시기 쿠바에서는 설탕과 담배가 많이 생산되었다. 특히 담배가 유럽시장에서 독점적 상품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쿠바는 중개 무역기지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19세기 들어 식민지 쿠바는 담배산업과 설탕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힘입어 카리브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식민지가 됐다. 그 결과 쿠바는 새로운 단계로의 진전을 추동하는 사회경제적 변동, 즉 대규모 농장주 및 상인집단들이 출현하게 되었고, 크리오요집단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역시 강화되었다.²⁾ 그리고 설탕산업의 기계화를 계기로 크리오요집단 내의 분화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쿠바사회는 산업화를 계기로 점차적으로 크리오요집단을 중심으로 경제적 토대를 형성하였고, 19세기 중반에 들어서 식민지 모국과 식민지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갈등이 심화되기에 이른다.

스페인의 쿠바에 대한 식민정책을 살펴보면, 금광 고갈이후 스페인이 식민지 쿠바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사탕수수 생산지로 바뀌게 된 17세기 후반부터이다. 이 시기 쿠바는 국제적 무역구조에서 식민지 원료공급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8세기에 들어 스페인 제국은 왕위계승전쟁을 계기로 많은 식민지를 잃고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유럽의 7년전쟁 이후에는 독점적 무역체제 조차도 붕괴되기에 이른다. 반면 식민지 쿠바는 스페인과는 달리 유럽제국간의 전쟁을 계기로 오히려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게 되었다. 왕위계승전쟁기간 중 쿠바가 프랑스와의 교역을 증대하여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스페인은 전후에 쿠바산 담배에 대

2) 중남미 식민지에서 크리오요들의 식민지 관료조직에 진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식민지 배제제하에서 그들은 정치, 행정에서도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었다. 특히, 16세기 후반이후 재정적자에 시달렸던 스페인은 이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매관매직을 단행하게 되었는데, 아우디엔시아의 경우, 크리오요가 차지한 비율은 17세기말에는 25%, 18세기 중반에는 무려 44%에 달하였다(増田義郎 2003, 130-131).

해 독점정책을 강제 시행함과 더불어 기존 담배농장주들을 추방해버렸다. 그러나 이런 독점정책에 대항하는 담배 밀무역이 근절되기는 커녕 오히려 성행하게 되자, 왕실은 무역정책을 바꾸어 1740년 왕립상사를 창립하여 쿠바산 설탕과 담배 등을 독점 구매하여 본국으로 수입해감으로써 담배농장주들은 막대한 수입을 올리게 되었고, 담배산업 또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게다가 유럽의 7년전쟁 기간 중 영국에 의해 점령당한(1762-1763) 쿠바는 이 기간 동안 쿠바의 설탕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던 스페인의 무역독점정책이 제거되면서 오히려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전후 파리조약(Treaty of Paris 1763)에 따라 쿠바를 돌려 받은 스페인은 국왕 카를로스 3세(Carlos III)의 개혁정책 실시를 계기로 무역규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사탕수수산업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쿠바에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많이 유입되었다.

한편 스페인 왕실은 전쟁으로 궁핍해진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식민 지배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쿠바에 인텐덴테(Intendente)제도를 아메리카대륙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 제도시행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 쿠바의 크리오요들은 심하게 반발하였다. 이런 반발에 대해 나이트는 쿠바는 비판적 크리오요들과 사회의 복합적 기능을 처리해나갈 인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를로스국왕의 경제적, 행정적 개혁정책의 주요 수혜자는 쿠바였다고 주장한다(Knight 1990, 228).

III.1.2. 탈식민지 독립운동

탈식민지 독립운동으로서 쿠바의 10년전쟁(Guerra de los Diez Años, 1868-78)사건을 살펴보겠다.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탈식민지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주제, 실패요인에 대하여 규명할 것이다. 먼저 쿠바에서 탈식민지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면, 쿠바 내 개혁적 크리오요들이 그 무렵 스페인 의회에 보낸 탄원서 내용은 당시 쿠바가 당면하고 있던 식민지 사회의 갈등구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무역관

세제도 개혁, 스페인 의회에 쿠바인 대표권 인정, 페닌슐라레스(Peninsulares)와의 법률적 공평성, 노예무역 금지 등이다. 당시 쿠바의 크리오요들은 스페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과중한 조세 부담 형태로 식민지에 전가하는 스페인의 조세정책에 대해 극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Williams 1984, 58). 그리고 스페인 본국인과 크리오요간의 차별적 식민지배정책에 대하여 현지 크리오요들은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민만식 1993, 67-68) 크리오요세력들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증대될수록 그 불만은 노골화되었다. 그리고 흑인노예문제는 식민지세력과 종주국간에 예민한 이해관계로 자리잡고 있었다.

중남미지역의 식민지들이 1824년까지 대부분 탈식민지 독립운동이 일어나 국가건설에 성공한 반면, 쿠바에서는 그들 식민지보다 50년 이상 늦은 1868년에 이르러서야 탈식민지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상대적으로 뒤늦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쿠바에는 <표1>에서와 같이 19세기에 들어 노예와 백인, 그리고 전체인구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데, 이는 스페인의 위기를 계기로 왕정이 붕괴되면서 쿠바에 주둔하고 있었던 스페인 군인들과 식민주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제가 번영하고 있던 쿠바에 대거 정착한 결과였다.

<표 1> 쿠바인구 현황(추정치)

해당년도	전체인구(단위: 명)	백 인	노 예	해방된 유색인
1792	272,300	153,559	64,590	54,151
1827	704,486	311,051	286,942	106,492
1841	1,007,624	418,291	436,495	152,838
1861	1,396,530	793,484	370,553	232,493
1877	1,509,291	1,032,435	211,247	265,609

* 출처: Rogoziński 2000, 201에서 재구성.

둘째, 아이티나 도미니카에서 일어난 탈식민지 독립운동에 두려움을 느낀 대다수 백인들이(Carrión 1983, 73)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운동

을 망설이였다.³⁾ 게다가 크리오요들이 식민체제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변화로 인한 재산상의 위협을 스스로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식민지배당국은 만약 크리오요세력이 탈식민지 독립운동을 전개한다면 노예를 해방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Perez 1995, 113). 크리오요들의 이런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탈식민지 독립운동은 다른 식민지에 비하여 후발적이였다. 그리고 18세기말이후 시작된 설탕산업의 혁명적 기계화를 계기로 쿠바의 설탕생산량은 <표 2>에서와 같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스페인 본국과 크리오요들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을 빚지 않았기 때문에 쿠바내 일부세력을 제외하고는 중남미지역의 독립운동열기에 대하여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표 2> 식민지 쿠바의 설탕수출량

해당년도	1805	1815	1829	1840	1850	1860	1868
수출량(톤)	35,238	45,396	84,187	161,248	294,952	428,769	720,250

* 출처: Pérez 1995, 77에서 재구성.

그러나 설탕산업의 기계화를 계기로 설탕산업이 대규모화, 자본화되는 방향으로 재편되면서 쿠바사회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 우선 설탕산업을 기계화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지 못한 사업자는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결국 몰락하였다. 반면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크리오요 집단이 새롭게 형성됨으로써 크리오요세력 내에서도 분화현상이 일어났다. 또한 기계화를 통하여 대자본가로 성장한 일부 크리오요들은 거대해진 자본력을 기반으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

3) 카리브지역 최초로 탈식민지 독립운동에 성공한 아이티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자유 흑인(free colored of salves)이 주체였다. 흑인이 주체로 등장하게 된 데에는 식민지 종주국 프랑스에서 시민혁명과 함께 자유·평등·박애의 프랑스혁명정신의 영향, 식민주의적 노동 및 경제착취 형태인 플랜테이션(Plantation)농업의 특성, 그리고 16세기 이후 흑인들의 끊임없는 반란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아이티의 탈식민지 독립운동을 이끈 이들은 프랑스혁명에 영향을 받은 해방된 유색인(colored freeman)들로서, 이들은 백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예제 폐지를 위한 투쟁조직을 결성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켜갔다. 게다가 설탕산업의 혁명은 아프리카로부터 흑인노예의 수입 증가, 미국과 스페인으로부터 식료품의 수입 증가, 영국, 미국, 독일 등으로부터 기계류 수입, 그리고 미국, 스페인, 영국 등의 수출시장 확대를 유발함으로써 쿠바를 국제무역구조에 편입시키는 등 여러 측면에서 국제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내었다(Knight 1990, 233). 그런데 이런 변화의 결과는 쿠바에게는 국제무역구조에 편입되면서 독자적 가격 결정력을 상실하면서 장기적으로 무역역조현상의 고통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페인에게는 쿠바경제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작용하였다. 설탕수출시장에서 스페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850년에는 27% 정도이었으나, 1865년에는 고작 전체의 3%에 불과하였다. 이는 곧, 스페인의 쿠바경제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의미하였다(Pérez 1995, 84). 이와 같은 쿠바경제에 대한 스페인의 시장점유비율 약화현상은 경제적 통제력을 상실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통제력의 약화로까지 전화되었고, 결국 쿠바 내에 독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민족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다면 식민지 쿠바의 탈식민지 독립운동을 이끈 주체는 누구였는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민지 종주국 스페인에 대한 쿠바 크리오요들의 탄원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일단의 크리오요들이 1868년 야라선언문(Grito de Yara)을 발표하면서 임시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 독립을 위한 10년전쟁(Guerra de los Diez Años, 1868-78)을 선언하였다. 독립선언에 대하여 대규모 설탕생산업자, 노예소유자의 대다수는 이에 반대하여 스페인 본국을 지지하였다. 반면, 폭동을 일으킨 민족주의자들 편에는 다양한 사람들, 즉 자유주의적 지식인, 개혁주의자, 독립옹호자, 중소규모 농장주, 노예폐지론자, 소규모 노예소유자, 미국과 합병주의자, 소농과 소상공 등이 집결하였다. 이들 폭동세력은 게릴라부대를 조직하여 스페인 군대와 싸웠다. 민족주의적 크리오요세력을 중심으로 전개된 독립전쟁은, 먼저 세스페데스(Carlos Manuel de Céspedes)를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하였으며, 200여명으로 출발한 무장세력은 여러 도시들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여 1개월 후에는 무려 1만여명의 대군으로 성장하는 진전

을 보였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1869년 세스페데스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⁴⁾ 이처럼 독립운동세력은 전쟁 초기에 군사적 역량과 정치적 지도력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탈식민지 독립운동의 지도세력은 노예해방문제를 둘러싸고 분열하게 되는데 군사지도자, 흑인 노동자, 농민들은 노예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하였던 반면, 크리오요들은 독립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서부지역의 대농장주들의 지지를 의식하여 점진적 폐지를 주장하는 타협적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스페인으로부터 정치·경제적 독립, 노예제도 폐지, 농민들에게 정치적 권리부여에 소극적인 임시정부의 정책노선은 지주들로부터는 절대적 지지를 받았으나, 노예제의 즉각적 폐지와 노동자, 농민들에게 정치적 권리 부여를 바라는 노동자, 농민들로부터는 적극적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노동자, 농민들을 독립전쟁으로 동원해 내지는 못하였다. 게다가 독립전쟁이 양쪽 모두에게 결정적 승리를 안겨주지 못한 채 10년을 끌게 되자, 보수적 지도세력은 1878년 스페인과 산혼조약(Pact of Zanjón)⁵⁾을 맺음으로써 쿠바의 탈식민지 독립운동은 휴전상태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운동의 주체는 대지주들을 제외한 민족주의적 성향의 크리오요를 중심으로 하여 일부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해방된 유색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쿠바의 독립운동은 외적으로 스페인의 9월혁명과 동시기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식민종주국의 강력한 군사력과의 충돌이 지연된 매우 유리한 외부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⁶⁾ 내부적으로는 크리오요세력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임시정부를 출범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장력 또한 여러 도시들을 장악하고 식민지배세력을 위협하면

4) 세스페데스는 대농장주의 가문에서 태어나 스페인에서 법학공부를 한 전형적인 크리오요로서 노예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고집하였으며, 노동자, 농민들의 요구에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5) 스페인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사면, 노예제 철폐, 쿠바인의 의회 대표권을 인정하는 등의 정치개혁을 약속하였다.

6) 쿠바의 1868년 탈식민지 독립운동은 급진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며 1868년부터 6년간 전개된 스페인의 9월혁명이 발발의 직접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9월혁명기간 중 스페인은 쿠바의 탈식민지 독립운동세력과의 무력충돌을 지연시켰고, 노예해방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서 10년간이라는 장기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쿠바의 독립운동이 실패한데에는 주체들의 낮은 독립의식과 노동자, 농민, 흑인 등 식민지 하층세력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지도세력들의 보수적, 점진적 입장으로 인하여 그들을 독립전쟁전선에 동원하는데 명백한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페레즈는 쿠바의 독립전쟁의 실패요인을 한정된 목표와 한정된 전쟁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Pérez 1995, 125). 그리고 노예문제를 둘러싸고 지도세력이 분열됨으로써 탈식민지 독립운동은 중심을 잃고 실패하고 만다.

III.2. 푸에르토리코

III.2.1. 식민지 경험

지정학적 측면에서 푸에르토리코를 살펴보면, 1508년 후안 폰세 데 레온(Juan Ponce De León)이 이끄는 정복자들에 의하여 스페인 식민지로 전락된 후 금광이 발견됨으로써 광산개발이 활기를 띠게 되어 상당수 스페인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⁷⁾ 그리고 이곳은 정복 초기 카리브지역의 여러 섬들을 정복하기 위한 전진기지이었다. 그런 이유로 카리브지역으로 유입된 노예들이 가장 먼저 들어왔던 곳이기도 하다. 16세기 중반이후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해적국가들의 활동이 지속되자, 이를 제어하기 위한 군사기지로써 푸에르토리코의 군사적 중요성을 인식한 스페인이 1539년 산후

7) Francisco Manuel de Lando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1530년 푸에르토리코에 거주하고 있었던 인구상황은 아래 도표와 같다.

구 분	인 원(단위 : 명)
스페인인	426
원주민(인디언)	1,537
아프리카인	2,264(San Juan/ San Germán)
합 계	4,227

* 출처: <http://welcome.topuertorico.org/reference/cen1530.shtml>

안(San Juan) 지역에 거대한 요새(El Morro)를 구축하고 식민지 방어에 적극 나섬으로써 금광이 고갈된 이후 푸에르토리코는 오랫동안 해적국가들을 방어하는 요새로서 평가되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군사적 평가와 역할로 인하여 푸에르토리코는 1세기 이상 경제적 방치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부르봉왕조의 개혁정책을 계기로 푸에르토리코가 정책지역이 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커피, 설탕, 담배 등을 재배하여 수출하는 군사적, 경제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 정책지역으로 변모되었다.

산업적 측면에서 푸에르토리코는 식민지 초기 금광이 고갈되면서 사탕수수경작이 중요한 산업으로 등장하였다. 푸에르토리코에 흑인 노예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518년부터인데, 이는 원주민들에 대한 학살과 노동력 착취, 질병 등으로 인한 인구 격감과, 서구적 산업생산활동으로 인한 노동력의 수요의 증가에 기인하였다(Rogozinski 2000, 46). 하지만 해적국가들의 밀무역을 근절하기 위한 스페인의 황폐화 정책으로 인하여 17세기 이후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설탕산업, 플란테이션 농장, 노예들이 사라졌다. 이런 황폐화 정책은 18세기말 개혁정책이 등장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스페인 왕실은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경제적 평가와 함께 개혁정책 실시를 천명하고 18세기말부터 종교적 믿음이 돈독한 장인(skilled artisan)이나 농장주들을 적극 받아들이며서부터 <표 3>과 같이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3> 푸에르토리코의 인구현황(추정치)

해당연도	전체인구수(단위: 명)	백 인	노 예	해방된 유색인
1775	71,260	29,263	7,487	34,510
1802	163,192	78,281	13,333	71,578
1834	358,836	188,869	41,818	126,399
1846	443,139	216,083	51,265	175,791
1869	600,233	323,454	39,069	237,710

* 출처: Rogozinski 2000, 123; Wagenheim 1998, 151

19세기초 스페인의 경제개혁조치를 계기로 기존의 단순생계농업

은 수출을 위한 상업농 형태로 변모되었고 그에 따라 외국과 무역량도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Wagenheim 1998, 131). 수출산품은 주로 설탕, 담배, 술, 기타 등이었는데, 설탕은 당시 쿠바 다음으로 많은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 푸에르토리코도 쿠바에서처럼 설탕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많은 노예들이 들어왔다. 사실 1840년대 노예무역이 금지되었음에도 1860년대까지도 이곳의 설탕산업은 여전히 노예노동을 요구하였다.

19세기이후 실시된 산업화 정책으로 푸에르토리코 경제는 한동안 눈부신 번영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푸에르토리코 경제가 국제시장질서에 편입되면서 쿠바처럼 1830년대 이후 독자적 가격결정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 결과 1860년대 이후 곡물류 등 생필품 수입총액과 설탕 등의 수출총액 측면에서 무역수지 적자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음으로 스페인의 대(對)푸에르토리코 식민정책에 대하여 살펴보면, 푸에르토리코는 스페인이 식민지 일반에 시행하였던 식민지 초기의 정복과 약탈, 그리고 엔코미엔다 제도가 시행되었다. 야만적 식민 통치에 분노한 이곳 원주민들이 식민지 초기 정복자들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켰으나 식민세력들을 축출하는데 실패하면서 산악지역으로 숨어들어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였다. 1514년 푸에르토리코에서는 다른 식민지와는 달리 백인과 원주민간의 결혼을 허락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조치의 목적은 인구 증가, 복음화, 그리고 당시 금광의 발견으로 대거 몰려 든 금광업자들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정책시행 결과 다른 식민지에서 나타나는 인종간 갈등문제가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다. 한편 스페인의 무역독점정책으로 푸에르토리코와 해적국가들간에 밀무역이 성행하게 되자, 부르봉왕가는 개혁정책을 내세우며 밀무역 근절대책으로 왕실소유회사들을 많이 만들어 대응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스페인의 독점적 무역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18세기 중반 스페인 왕실은 토지보유제도를 개혁하였는데, 이는 경작지의 재할당을 통해 식민지 경작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Wagenheim 1998, 81).

III.2.2. 탈식민지 독립운동

앞에서도 밝혔듯이 여기서는 스페인 지배하에서 푸에르토리코 탈식민지 독립운동의 유일한 사건인 라레스 폭동(Lares Revolt)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배경, 주체, 좌절요인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먼저, 푸에르토리코에서 탈식민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첫째, 중남미지역 식민지 대부분이 독립을 성취하게 되자, 스페인은 나머지 식민지들의 독립운동이나 독립한 국가들이 독립하지 못한 쿠바나 푸에르토리코에 침공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였다. 특히, 대콜롬비아의 볼리바르가 주도하는 식민지 해방전쟁을 우려하였다. 스페인의 이런 위기의식은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군사력 강화와 군사적 통치 시행, 그리고 이른바 신법(Special Laws) 시행을 통하여 제국의회의 대표권 박탈, 기부행위 강요, 군사비 부담, 지방도시운영에 대한 자의적 개입과 전횡 등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식민지인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Wagenheim 1997, 164-165). 푸에르토리코의 고조된 불만에 대하여 스페인 당국은 1830년대 이후 계속해서 정치개혁을 약속하였지만 푸에르토리코에 전혀 실현되지 못하였다(Monge 1997, 10). 스페인의 수차례 헌법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 성과물들이 푸에르토리코에 계까지 확대 적용되지는 못하였다.

둘째, 스페인의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표4>에도 나타나있듯이 식민지 푸에르토리코의 경제, 특히 수출시장에서 스페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되었다. 미국에 비해서는 1/7, 영국과는 1/2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스페인의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약화와 함께, 한동안 번영을 구가하던 푸에르토리코의 수출경제가 <표 4>에서와 같이 1860년대 이후 무역적자에 시달리면서 생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농장주들 또한 스페인 상인들에게 많은 빚을 지게되는 구조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게다가 허리케인(Hurricane)으로 인한 농경지 황폐화라는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푸에르토리코의 경제상황은 최악의 조건으로 치닫게 된다. 이와 같은 제반 요인들이 탈식민지 독립운동의 발생배경으로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표 4> 1866년 푸에르토리코의 무역현황(단위: Escudos)

	푸에르토리코의 수입량	푸에르토리코의 수출량
스페인	4,847,019	828,932
미 국	3,714,315	5,957,690
카리브지역 비스페인계	3,246,795	749,421
영 국	2,510,858	1,570,812
총 계	14,317,087	9,106,855

* 출처: Wagenheim 1997, 7.

다음으로 푸에르토리코의 탈식민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주체세력은 누구였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독립을 위한 라레스 폭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언론인(34.3%), 소농(13.4%), 노예(8.9%), 소상인(6.3%)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Wagenheim 1997, 29-38). 지도세력은 크리오요출신의 노예폐지론자, 자유주의적 지식인 등⁸⁾으로 지도이념은 노예제 폐지와 자유주의에 근거하고 있었다. 독립운동의 성격 및 지향하는 바는 1868년 초 베탄세스가 밝힌 「자유인간 십계명」(Ten Commandments of Free Men)에서 밝힌 노예제 폐지, 적정한 세금납부 권리,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무역자유, 의회의 자유, 무기소지 자유, 시민의 신성한 권리, 공무원 선거권 등의 주장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다.

독립운동세력은 독립을 선언한 후 라미레스 (Francisco Ramírez)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정부각료와 군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임시정부를 신속하게 구성함으로써 독립운동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지도조직을 구성하는데서 기민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임시정부는 켈기문을 통해, ‘푸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기 위하여 총을 들라,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인간들은 무장하라. 총을 드는 모든 노예들은

8) 라레스 폭동을 이끌었던 베탄세스(Ramón E meterio Betances), 벨비스(Segun Ruiz Belvis), 로메로통고레스(Calixto Romero-Tongores), 고이코(Pedro Gerónimo Goico), 브랑코(Julian Blanco), 아킬레라(Jose Celis Aguilera), 고에나가(Rufino Goenaga), 키노네스(Vicente María Quiñones), 라크로이크스(Carlos Elio Lacroix), 몬테(Felix del Monte), 레이라스(Luis de Leiras) 등은 주모자로서 스페인에 의해 추방된 크리오요들이었다.

해방될 것'이라고 각계각층, 외국인, 노예들의 독립전쟁에의 동참을 선동하는 동원전술도 구사하였다. 그리고 게릴라부대를 조직하여 스페인 군대와와의 전투에 대비하였고, 전쟁비용을 마련하는 데에도 온 힘을 기울였다. 이와 같이 푸에르토리코의 탈식민지 독립운동세력은 공화국을 선포하고 정부조직도 갖추었으며, 전쟁비용 조달에도 일정하게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탈식민지 독립운동은 3개월 여만에 붕괴되고 말았다.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운동을 좌절시켰던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당시 독립을 위한 봉기 음모가 사전에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당시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최고지도자인 베탄세스가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수품들이 국내로 반입되지 못하였다. 둘째, 봉기의 최고 지도자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봉기에 가담할 것을 약속한 지방 지도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봉기에의 동참과 군사적 지원을 망설이었다. 뿐만 아니라 식민당국에 독립봉기 기밀이 누출되면서 외부의 지원 또한 차단되었다.

푸에르토리코의 탈식민지 독립운동은 식민지 종주국 스페인의 9월 혁명과 쿠바의 10년전쟁과 동시기에 전개되면서 노예제도 폐지와 자유주의적 제도 도입 등 서구적 근대흐름에 부응하는 근대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또한 독립운동은 크리오요들의 주도하에 여러 계층이 참여하여 식민지적 억압과 착취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국가주의적 운동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정치적 위기에 휩싸여 있었던 스페인은 이미 식민지를 경영할 힘을 상실한 채 종이호랑이 수준에 불과하였음에도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운동 주체들의 지도력과 동원능력, 전쟁수행능력 등의 미숙으로 인하여 탈식민지 독립운동은 실패하고 말았다.

IV.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식민지 경험과 탈식민지 독립운동에 대한 비교

이 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식민지 경험과 탈식민지 독립운동을 유사성과 상이성에 초점을 맞추어 유사점과 상이점을 추출하고자 한다. 양 식민지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은 스페인의 식민주의와, 식민지의 지리적, 산업적, 사회운동적 요소들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형성되고 규정되어진다고 볼 때, 유사성과 상이성은 스페인의 식민정책, 식민지의 지리적, 산업적, 사회운동적 요소에 근거하고자 한다.

IV.1. 유사점

우선 지정학적 측면에서 쿠바와 푸에르토리코는 카리브지역 중에서 대안틸리스(Greater Antilles)의 섬나라들로서 스페인 식민주의자들이 중남미지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관문이었으며, 식민지 경영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들 지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측면에 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이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쿠바는 식민지 초기 카리브지역의 금과 은을 식민지 본국으로 수송하는 보물선단의 정박지, 방어지역이었다. 그리고 해적국가들의 침략이 빈번해지면서 스페인은 쿠바의 지리적 가치에 대하여 경제적 측면보다는 군사전략적 측면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식민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쿠바는 카리브지역 생산물 교역의 중계지로서, 특히 아바나는 스페인의 정치적, 군사적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다(Pérez 1995, 38).

한편 푸에르토리코는 식민지 초기 카리브지역을 정복하기 위한 전진기지이었으며, 유럽으로부터 들어오는 침략세력을 막기 위한 군사적 방어진지 및 카리브해의 전략적 지역으로서 식민지 초기부터 싸움의 골간으로 평가되었다(Wagenheim 1998, 53). 그리고 산업화 이후

에는 스페인 경제발전의 전략적 선택지역이었다. 이처럼 쿠바와 푸에르토리코는 중남미와 유럽 및 본국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해상로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해적국가들로부터 카리브해 지역을 방어하기에 유리한 요충지이며, 스페인 개혁정책의 전략적 선택지역으로서 잇점을 가졌기 때문에 두 식민지 모두 스페인의 식민지 경영을 위한 군사적, 경제적 전략요충지가 되었다.

다음으로 산업화의 측면에서 두 지역의 유사점은 첫째, 모두 금광이 발견되면서 식민지 초기 스페인으로부터 한동안 각광을 받았으나 폐광된 후에는 모두 스페인 왕실의 관심권 밖으로 멀어짐으로써 산업적 후진지역으로 전략하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크리오요의 사회경제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독립을 지연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이들 지역은 뒤늦은 산업화 노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조건과 거주자들의 노력으로 사탕수수, 담배 등을 생산하는 양질의 작물 재배지로 변모되었으며, 스페인의 개혁정책 실시를 계기로 두 지역은 재평가되어 세계 최고의 설탕생산지로 탈바꿈하였다. 설탕산업의 기계화를 통한 설탕산업혁명에 성공하여 설탕생산의 중심지들로서 위치를 확고히 지켰으나 설탕산업이 열강들의 교역시장에 편입되면서 두 식민지 모두 독자적인 가격결정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역역조에 시달렸다. 그 결과 일정기간 경제적 번영을 누렸던 식민지 경제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하였다.

마지막으로 탈식민지 독립운동 측면에서 쿠바와 푸에르토리코는 몇가지 유사한 현상을 보였다. 첫째, 카리브지역을 비롯한 중남미지역에서 탈식민지 독립운동이 식민지 본국의 위기에 집중되어 일어나 거의 모두 독립을 쟁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에서는 탈식민지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못하였다. 중남미의 스페인 식민지 대부분이 독립국가형성에 성공을 거둔 반면,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에서만은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못한 데는 앞에서 살폈듯이 독립운동의 추동력이라 할 수 있는 식민지 사회경제의 미발달에 따른 독립운동주체역량의 미성숙 때문이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식민지 경제

의 미발전, 즉 후발적 산업화로 식민지 종주국과 식민지간의 사회경제적 갈등구조가 심화되지 못한 데에 기인하였다. 사실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산업화가 거의 18세기말에 들어서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탈식민지 국민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물질 토대는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이 거의 동시기에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은 중남미지역 탈식민지 독립운동의 거의 대부분이 식민지 본국의 정치적 위기라는 외부적 요인이 계기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이성형 2001, 144-145). 마찬가지로 양국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 외적 계기는 스페인의 9월혁명이었다. 그렇다면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에서 독립운동이 어떻게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는가하는 점이다. 당시 푸에르토리코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탄세스가 뉴욕에 있는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을 위한 음모그룹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Knight 1990, 261).

IV-2. 상이점

쿠바와 푸에르토리코간의 상이한 점은 먼저, 식민정책 중에서 결혼정책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식민지배 초기 강력히 저항하는 푸에르토리코 원주민들에 대한 학살과 가혹한 노동착취 등으로 당시 정복초기 6만 여명에 달하던 원주민들이 1530년 무렵에는 1천 5백여명으로 대폭 줄었다. 상주인구가 절대적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자, 스페인 왕실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원주민들의 저항을 차단 및 완화시키면서, 상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거주민들간의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반면, 쿠바에서는 푸에르토리코에서와 같이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은 실시되지 않았다. 이런 차이는 인종간 차별 문제에 영향을 미쳐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인종 및 계급간의 차별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았지만, 쿠바에서는 크리오요들이 흑인해방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흑인들의 폭동 가능성에

대한 공포심을 풀지 않았다. 이런 정책적 차이의 결과, 아래 <표5>와 같이 인구구성의 비율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에서 백인비율은 모두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해방된 유색인의 비율은 푸에르토리코가 쿠바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또한 백인과 해방된 유색인의 구성비율에서도 푸에르토리코는 서로 비슷하였으나 쿠바는 백인인구가 유색인 보다 4배상 많았다.

다음으로 독립운동역량에서도 양자간에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첫째, 쿠바는 독립전쟁을 10년 동안이나 수행해온 반면, 푸에르토리코는 3개월 정도에 그쳤다. 장기간의 전쟁수행을 요구하는 독립운동은 톨리의 주장처럼,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자원의 추출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Tilly 1985, 519-521). 추출능력을 추론해 보기 위하여 전체인구 및 백인인구, 그리고 설탕생산량 등을 중심으로 한 <표 5>를 작성하여 양자간의 자원능력을 비교해 보았다. 전체인구는 쿠바가 푸에르토리코에 비하여 약 2배 이상 많았고, 백인인구 또한 쿠바가 2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설탕생산량에서는 쿠바가 푸에르토리코의 3배 이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런 수량적 차이는 산업의 규모 및 산업화 정도, 나아가 사회경제적 역량의 차이를 상당수준 표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노예해방문제는 독립운동과정에서 양자간 큰 차이를 드러냈다. 쿠바의 독립운동 지도세력은 노예들에 대한 무역금지에는 동의하였으나(앞에서 언급한 쿠바 대표들이 제국의회에 보낸 탄원서 내용 참조), 당시 쿠바의 설탕산업이 여전히 많은 노예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26.5%) 즉각적이고 완전한 노예해방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쿠바의 백인들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흑인들에게 공포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백인들로서는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반면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운동 지도세력은 설탕산업에서 노예노동에 대한 비중이 낮았고(7.1%), 노예해방에 대한 독립운동 주체들간에 공감대(「자유인들의 십계명」 참조)가 일정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노예해방 주장에 동의하였다. 이처럼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운동은 사회적 의식과 산업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노예해방문제에 차이를 보였다.

<표 5>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자원 비교

	전체인구 (1860-1861)	백 인 (1860-1861)	해방된 유색인 (1860-1861)	노 예 (1860-1861)	설탕생산량 (1850-1854)	국토면적 (km ²)
쿠 바	1,396,530명 (100%)	793,484명 (56.8%)	232,493명 (16.6%)	370,553명 (26.5%)	287톤	110,861
푸에르토리코	583,181명 (100%)	300,406명 (51.5%)	241,037명 (41.3%)	41,738명 (7.1%)	91톤	9,104

다음으로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탈식민지 독립운동이 실패하게 된 요인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쿠바는 장기간에 걸친 전쟁능력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 폐지를 둘러싼 지도노선에서의 분열과 함께 낮은 독립의식, 리더십 부족 등으로 독립을 쟁취하는데 실패하였다 (Carrion 1983, 112). 반면 푸에르토리코는 독립운동에 대한 음모가 사전에 노출되면서 해외에 머물고 있던 독립운동지도자들의 국내잠입과 전쟁물자의 국내반입에 모두 실패하였다. 거사를 미리 포착한 식민지배당국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색과 체포에 주력하고, 폭동에 대비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성공가능성을 낮게 하였다. 게다가 탈식민지 독립운동을 주도한 최고지도자 베탄세스(R. Betances)의 국내잠입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독립운동세력의 지도력을 형성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유동적인 위기상황에서 거사동참을 약속한 농장주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독립을 위한 폭동사건에 합류하는 것을 망설임으로써 전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한 채, 일부지역의 폭동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쿠바는 주로 흑인노예문제 등 입장차이로 인한 지도노선의 분열이 실패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데 비하여, 푸에르토리코는 독립운동 음모의 사전 노출과 지도력 한계, 그리고 사회경제적 역량미숙을 주요한 실패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스페인 식민지배시기에서 쿠바와 푸에르토리코가 겪은 식민지 경험과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탈식민지 독립운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앞의 내용에 대한 요약과 함께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식민지 경험과 탈식민지 독립운동이 갖는 특징과 성격, 그리고 유사성과 차이점을 규정짓는 요인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식민지 경험은 어디까지나 정복과 약탈, 그리고 식민지 사회건설이라는 중남미지역에서 자행된 스페인 식민주의의 일반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체제하에서 특정지역의 운명은 지정학적 특성, 산업화의 노정, 그리고 탈식민지 독립운동에서 차이를 보였다. 지정학적으로 쿠바와 푸에르토리코는 중남미지역 식민지화의 관문이며, 유럽과 중남미지역을 연결하는 해상출입통로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로서 큰 의미를 가졌다. 이런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두 식민지는 항상 국제적 긴장과 분리될 수 없었다. 또한 식민지 초기 두 지역에서 모두 금광이 발견됨으로써 스페인 식민주의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금광의 고갈에 따른 스페인의 무관심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들 식민지들은 자기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기존의 약탈과 착취, 그리고 골드러시의 단계를 벗어나 식민지 경제의 산업화단계로의 진전이였다. 하지만 이런 필요성은 식민지배체제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방식으로 관철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이유로 쿠바의 경우 18세기 중반 스페인의 개혁정책 실시를 계기로 본격적인 산업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비옥한 토양을 바탕으로 사탕수수과 담배 등의 산업이 발달하였다.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18세기말이후 스페인 당국의 산업화정책과 맞물려 사탕수수, 담배, 술 등을 중심으로 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양 식민지는 산업의 발달과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크리오요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또한 증가되는 등 식민

지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하지만 양자는 이런 산업화의 결과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경제적 갈등과 더불어 구조화된 식민지적 착취를 방조한 채, 경제발전이 가져다준 성장의 과실에 몰입된 나머지 일정기간 탈식민지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19세기중반이후 증폭되는 사회경제적 갈등은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에서 탈식민지 독립의식을 유발시켰고, 이들 지역의 탈식민지 세력들로 하여금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들의 뒤늦은 독립운동은 우연하게도 동일한 시기에 발생하게 되나, 불행하게도 다같이 실패하게 되는데, 그 요인은 미약한 사회경제적 역량, 낮은 독립의식과 지도력의 한계에 기인하였다. 특히, 쿠바의 경우 흑인노예해방을 둘러싸고 독립운동지도세력들간의 분열이, 푸에르토리코는 독립운동음모의 사전 노출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탈식민지 독립운동이 보여주는 몇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먼저 동일시기에 일어났지만 크리오요들의 소극적 참여와 분열, 그리고 전쟁수행능력의 부재 등으로 다같이 실패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두 식민지의 독립운동은 결국 산업화와 경제발전 에 따라 축적된 사회경제적 역량에 의거하였으며, 동시에 산업화의 결과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경제적 갈등과 구조화된 식민지적 착취라는 구조적 요인이 동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흑인 노예해방문제는 독립운동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쿠바와 푸에르토리코간의 유사함과 차이를 규정하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존재란 시대적 특수성과 주관적 의지 및 조건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규정할 때, 존재의 유사성과 차이 역시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요소의 관계물 이외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점에서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유사성과 상이성은 자본주의의 중상주의적 이윤추구운동의 범주 속에서 식민지의 지정학 가치 발현, 산업화 노정, 탈식민지 독립운동이라는 주관적 요소와 운동을 통해서 규정지어졌다고 하겠다. 당시 스페인 식민주의는 중남미를 중상주의적 이윤추구의 대상, 즉 원료공급지와 소비시장으로 강제적 편

입과 착취를 자기의 본질로 하였다. 때문에 식민지는 식민주의적 무차별성과 이윤추구의 상대성이 관철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탈식민주의를 자기의 과제로 삼는 주체의 공간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유사성과 차이를 규정하는 요인은 지정학적 특성, 산업화, 식민지정책, 그리고 탈식민지 독립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식민지 경험과 탈식민지 독립운동은 특정시대의 식민주의라는 특성과 주관적 요소로서 지정학적 가치, 산업발전적 조건, 그리고 탈식민지 독립운동이라는 주관적 의지가 결합된 역사적 생성물의 하나였다. 또한 그것은 종교적, 사회문화적, 인종적, 지리적, 사상이념적 연결고리를 형성함으로써 중남미를 혼종성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rough comparative research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colonial experiences between Cuba and Puerto Rico. The research will consider the independence movements, the characteristics and the nature which the 2 countries underwent under Spanish colony. Research methods used comparative analysis.

Colonial experiences of Cuba and Puerto Rico were analyzed with individual colonial policies according to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industrial development and colonial conditions which made the differences in the colonies. The independence movements in Cuba and Puerto Rico were analyzed with the Ten Year War in Cuba and Lares Uprising in Puerto Rico under the Spanish rul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s in Cuba and Puerto Rico were that although they broke out at the same period, they failed because of negative participation, the disruption of the Creoles and the lack of capacity in war. In addition, the independence movements of

these two colonies depended on social and economic capacity accumulated by industrialization, economic growth and structural factors. the increasing social and economic conflicts and structured colonial exploitation resulting from industrialization acted as motives. Also the emancipation of black slaves was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proces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Key-Words : Colonial Experience, Independence Movement,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Industrialization, Creole / 식민지 경험, 독립운동, 지정학적 특징, 산업화, 크리오요

논문투고일자: 2004. 06. 09

심사완료일자: 2004. 06. 11

게재확정일자: 2004. 08. 16

참고문헌

- 김우택 편(2003),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 소화.
- 김응중(2001), 『아날학파의 역사세계』, 아르케.
- 민만식 외(1993), 『중남미사』, 민음사.
- 안청시 외(2000), 『현대 정치경제학의 주요이론가들』, 아카넷.
- 이성형 편(2001),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사상』, 까치.
- 엘리엇 H.(2000), 『스페인 제국사 1469-1716』, (김원중 역), 까치.
- _____ (2003), 『히스패닉세계』, (김원중 외 역), 까치.
- Tilly, Charles(1990).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 (이향순 역). 학문과 사상사.
- 増田義郎(1998), 『物語 ラテンアメリカの歴史』. 『이야기 라틴아메리
카사』, (신금순 역), 심산.
- Bendix, Reinhard(1964), *Nation-Building and Citizenship*, John Wiley.
- Carr, Raymond(1984). *Puerto Rico: a colonial experiment*. New York: A
Twentieth Century Fund Study.
- Carrión, A. Morales(1983), *Puerto Rico: A Political and Cultural History*.
Nashville: American Association for State and Local History.
- Hamnett, Brian R.(1997), “Process and pattern: a re-examination of the
Ibero-American independence movements, 1808-1826”,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y* Vol. 29. May, pp. 279-328.
- Knight, Franklin(1990), *The Caribbean, the genesis of a fragmented
nation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 Monge, José T.(1997), *Puerto Rico*,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Moore, Jr. Barrington(1966),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
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oston: Beacon Press.
- Pérez, Jr., Louis A.(1995), *Cuba: Between Reform and Revolution*,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goziński, Jan(2000), *A brief history of the Caribbean*, New York: A Plume Book.
- Tilly, Charles(1975).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the wester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85) “War making and state making as organized crime”, in John A. Hall, *The Stat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519-521.
- Wagenheim, Olga Jiménez de(1997), *Puerto Rico’s revolt for independence El Grito de Lares*, Princeton: Markus Wiener Publishers.
- _____ (1998), *Puerto Rico: an interpretive history from pre-columbian times to 1900*, Princeton: Markus Wiener Publishers.
- Williams, Eric(1984), *From Columbus to Castro: the History of the Caribbean 1492-1989*, New York: Vintage Books.
- <http://welcome.topuertorico.org>
- <http://welcome.topuertorico.org/reference/cen1530.shtml>